木戸孝允과 아이즈(會津) 전후처리

심기재*
gjshim@dankook.ac.kr

Contents

Ⅰ. 머리말
Ⅱ. 아이즈 전쟁(會津 戰爭) 전후처분
Ⅲ. 아이즈 항복인(會津 降伏人)의 홋카이도 이주개척
Ⅳ. 맺음말

Abstract

本稿は、明治元年に起こった東北戦争の最大激戦であった会津戦後処理、つまり降伏人の北海道移住開拓事業と関連して新政府指導者の一人である木戸孝允の認識と政治的努力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朝敵’会津藩は東北戦争発端の主犯と目され、同年12月の処分で滅藩し、藩主以下家臣及び一般藩士(降伏人)は斬首ないし諸藩での永御預けとなった。会津処分に深く関わった木戸は、処分は君臣の罪をおかした公的な罪を問うたもので、けっして私的な感情でなされたものではなっかたことを強調し、皇国の民になった降伏人の可哀想な事情を同情し、彼らに見舞金を渡したこともあった。しかし、そうした一時的な措置だけでは謹慎中の降伏人に対する根本策にならないと判断した木戸は、北海道などの地域に彼らを移住開拓させ生活を救済し、さらにロシアの南下からも北海道をも防備しようとする目的で、元年後半期から政治的同伴者である大村益次郎(軍務官副知事)をはじめとした要路に自らの構想を提案した結果、翌年2月軍務官とともに降伏人の北海道への移住開拓と、その他の地域選定を受け持って推進せよと命令された。これで降伏人処理は従来の委託諸藩中心から木戸・軍務官中心に移され、北海道と斗南藩へ家族含みの降伏人12000・5000余名をそれぞれ移住させ開拓に従事させるという木戸構想が、6月上旬頃までは軍務官との協調の下でうまく進まれるように見えた。

しかし7月官制改革という政局変化の中で北海道開拓専管の開拓使が新設され、ともすれば兵部省担当の降伏人移住開拓事業も開拓使に移管されるかもしれない状況に追い込まれた。これに木戸は開拓放棄を撤回するよう大村を説得する一方、友好的な三条・大隈、そして伊藤・井上らの長州派に新政府政策の一貫性の不在を批判し、なお開拓事業維持と関連して協調を頼んだ。それから管掌変更推進の当事者と目された大久保に強く抗議した末、

* 단국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일본근대사 전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北海道移住開拓事業を元の状態に取り戻すことができた。しかしながら、管轄をめぐるつばぜりあいで事業延期はやむなくなり規模も当初より大幅に縮小され、代わりに斗南藩の新設とそこへの降伏人の大挙移住がなされた。要するに、会津戦後処理上の降伏人の北海道移住開拓事業は、明治元年春以来、北海道開拓に関心を持ち続けていた木戸により降伏人の生活救済・北海道開拓・北方防備という目的で構想され、木戸自身と大村が実権をもっていた軍務官(兵部省)の政治的努力が管轄争いにもかかわらず一部実を結んだ。

Key Words : 木戸孝允、大村益次郎、戦後処理、軍務官、会津 降伏人、北海道 移住開拓事業
Kido Takayoshi, Omura Masuzirou, Postwar processing, Military duties official, Aizu Surrender person, Hokkaido Emigration development work

Ⅰ. 머리말

메이지(明治) 신정부 성립직후 일어난 보신(戊辰)전쟁[1]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것은 도호쿠(東北) 전쟁으로, 전쟁 발단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이즈번(會津藩)이었다. 이곳은 현재의 후쿠시마현(福島縣) 서부와 니이가타현(新潟縣)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도호쿠 전쟁은 신정부에 의해 '조적(朝敵)'으로 규정되어 '追討'의 입장이 된 아이즈번의 처분을 둘러싸고, 신정부군과 아이즈・쇼나이(會津・庄內)동맹 그리고 아이즈번에 동정적인 오우에쓰 열번(奧羽越列藩)동맹의 구막부 지지세력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다.[2] 도호쿠 전쟁 초반은 관군이 병력・탄약부족으로 수세에 몰렸으나, 에치고(越後)의 長岡城(新潟縣)・二本松城(福島縣)이 함락되면서 전세는 신정부 우세로 기울기 시작했다. 특히 최대 격전지였던 아이즈 전쟁에서 사쓰마(薩摩)・도사(土佐) 양번 3만여 명의 차출병력으로 구성된 관군은 공격명령을 받은 지 3일 만에 主城인 쓰루가오카죠(鶴ヶ岡城)를 포위했다. 번주 마쓰다이라 카타모리(松平容保) 이하 5천여 명의

1) 原口清(1963)『戊辰戦争』塙書房; 佐々木克(1977)『戊辰戦争』中央公論社; 石井孝(1984)『戊辰戦争論』吉川弘文館; 保谷徹(2007)『戊辰戦争』吉川弘文館; 심기재(2010)「木戸孝允과 戊辰戦争」『日本語文学』47.
2) 심기재(2012)「木戸孝允과 戊辰戦争 전후처리-東北戦争을 중심으로-」『韓日関係史研究』41, p.26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가신과 민중들은 한 달 가까이 저항한 끝에 9월 22일 마침내 관군에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2월 7일 단행된 도호쿠 항복 제번(諸藩)에 대한 전후처분에서, 아이즈번은 일차적으로 번 폐지에 따른 23만석의 영지몰수, 번주를 '조적'으로 이끈 죄를 물은 가신 참수에 이어 번주·번사의 근신을 명령받았다.[3] 이후 후술처럼 이차적으로 아이즈 번사 즉 항복인의 홋카이도(北海道) 이주와 구아이즈번의 재흥허가에 따른 도나미번(斗南藩)의 창설과 이주명령으로 이어졌다.

본고에서는 도호쿠 전쟁 전후처리의 일환으로서 아이즈 항복인의 처리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미 선행연구가 존재하는 구아이즈 번령에 설치된 와카마쓰현(若松縣) 및 도나미번의 신설·그곳으로의 항복인의 이주과정[4]이 아닌 홋카이도 이주개척문제와 관련해 신정부 실력자 기도 타카요시(木戸孝允)의 인식과 정치적 노력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한 연구는 도나미번의 성립과정 등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거의 전무하다. 다만 아이즈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사업과 관련한 기도의 관여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지적[5]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언급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가 미진한 홋카이도로의 아이즈 항복인의 이주개척문제와 관련해, 기도와 그의 정치적 동반자인 동향의 오무라 마쓰지로(大村益次郎)가 어떤 인식 하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메이지 초년의 보신전쟁에 관한 기도 타카요시의 전후처리상을 조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심기재, 위의 논문, pp.290-2.

4) 대부분의 연구가 아이즈 전쟁의 경과과정, 폐지된 구아이즈 번령에 새롭게 탄생한 와카마쓰현의 창설·와카마쓰 현정(県政), 구아이즈번에 대신하는 도나미번 신설과 동 지역으로의 항복인 이주문제에만 천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会津戊辰戦史編纂会(1941)『会津戊辰戦史』井田書店; 相田泰三(1964)『斗南藩·未定稿』; 会津若松史出版委員会編(1966)『会津若松史』会津若松市; 葛西富夫(1992)『会津·斗南藩史』東洋書院; 松尾正人(1977)「明治新政府の地方支配-若松県政を中心として-」『地方史研究』146; 松尾正人(1986)「明治新政権の会津処分」(小林清治編『福島の研究』4 清文堂); 星亮一(2005)『会津戦争全史』講談社등이 있다.

5) 松尾正人(1986), 위의 논문 p.18; 星亮一(2006)「会津藩斗南へ」三修社, p.22. 松尾·星는 기도가 항복인의 홋카이도로의 이주에 관여했음을 간단히 언급하고는 있으나, 기도가 어떤 인식하에서 어떤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Ⅱ. 아이즈 전쟁(會津 戰爭) 전후처분

2.1 기도의 아이즈 전후처분 인식

도호쿠 전쟁은 메이지 원년 9월 22일 아이즈번, 23일 쇼나이번 그리고 25일 모리오카번(盛岡藩) 등의 항복으로 종식되었다. 이후 신정부내에서 도호쿠 전후처분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參與 기도는 10월 4일 아이즈번을 포함한 5번의 처분초안을 작성하여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議定兼輔相)에게 정식으로 제출했다.[6] 이 건의서에서 기도는 아이즈 처분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 아이즈는 '조적의 장본(인)'으로 금일의 처분에 이르러 '천지의 大道'를 바로 잡고, '군신의 大義'를 명확히 하는 '大典'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조금도 '活路'는 없습니다.....세상에서 빈번히 죽음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아이즈를 미워하거나 '私心'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大■義'를 사사롭거나 편벽됨이 없이 당당히 명백하게 하고, 한 사람을 사형시킴은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천하 후세'를 도와 '朝威'를 영원히 세우고, 또한 '국체' 의 큰 토대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를 ■■. 이 '(大)典'으로 처분하지 못할 때는 '천하 후세'가 군주를 배반한 신하에 어떤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血食' 등의 문제는 자연히 ■■■, '평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천하'가 '해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하의 책임을 논할 때는 전혀 '활로'는 없으나, 그 이상은 천황의 판단('御親斷')을 삼가 받들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선 아이즈번이 '조적'의 장본인임을 지적한 후에 천하의 '대도'를 바로잡고 군신의 '대의'를 분명히 하는 국가 법률로 처분할 것을 주장하며, 대다수가 이야기하는 아이즈 처분론은 아이즈를 미워하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어느 한 쪽을 희생시켜 궁극적으로 민심안정 및 항구적인 정부권위의 확립과 천황에 의한 국가통치토대를 세우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6) 日本史籍協会編(1967)『木戸孝允日記』1 東京大学出版会, p.116, 이하『木戸日記』1로 약칭; 妻木忠太(1927)『松菊木戸公伝』上 明治書院, pp.1057-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의명분론에 입각해 아이즈 엄벌론을 줄곧 주장해왔으나, 천황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대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기도는 아이즈번을 도호쿠 전쟁발단의 원인제공자로 중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지적한 후에, 죄의 경중에 따라 아이즈와 기타 도호쿠 항복제번의 처분기준을 달리하여 처분자체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천황의 재단에 의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임을 전망했다.[7] 한편 도호쿠 항복제번에 대한 전후처분은 제사정[8]으로 유보되어 오다가 후술처럼 12월 7일에 단행하게 되나, 처분 6일전인 1일에 전후처분의 주요대상인 아이즈번 처분과 관련한 천황 하문에 기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9]

>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다만 그 죄를 미워할 뿐입니다. '천하 후세'로 하여금 '不忠의 臣'을 벌하고, 국가의 법률로 다만 '상벌' 여부를 논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아이즈번의 죄는 신하의 죄입니다. 오랜 동안 왕정복고에 힘써 왔던 사람들이 아이즈번 때문에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신하에 해당하는 아이즈번의 죄를 관대하게 처벌하고자 논함은 아이즈번에 동조해 '大法'을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법'은 '천하의 법'으로 조금도 꺾여서는 아니 됩니다(後略).

기도는 신정부의 처분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대의명분에 어긋나는 원칙 없는 아이즈 '寬典'설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10] 이미 천황의 정치적 재단에 의한 관대처분을 수용할 의사를 표시[11]한 바 있었던 기도의 아이즈 엄벌론은 새롭게 천황을 중핵으로 한 신정

---

7) 심기재(2012), 앞의 논문, pp.274-6.

8) 항복제번처분과 관련된 제번 등의 다양한 건의와 논의에다가 에노모토 타케아키(榎本武揚) 구막부 탈함세력 진압 등에 밀려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심기재, 위의 논문, p.283・286).

9) 『木戸日記』1, p.150; 宮内庁(1968) 『明治天皇紀』第1 吉川弘文館, p.919; 『松菊木戸公伝』上, p.1078; 日本史籍協会編(1969) 『大久保利通日記』1 東京大学出版会 覆刻, p.492, 이하 『大久保日記』1로 약칭.

10) 『木戸日記』1, pp.150-1; 『松菊木戸公伝』上, p.1078; 『明治天皇紀』第1, p.919; 『大久保日記』1, p.492. 아이즈번 등이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대다수 관대론자들이 항복인의 '死罪' 불가 혹은 '緩急', '時宜'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말기 이래의 조슈와 아이즈 사이의 정치적 반목관계를 이유로 기도의 엄벌론이 사적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대해, 기도는 어디까지나 직분에 충실하고 또한 '국가'를 우선한 충정에서 비롯된 공적 건의였음을 강조했다(심기재, 위의 논문, p.266・28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부가 탄생한 상황에서 군신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도호쿠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아이즈번을 엄벌로 다스려 국가기강을 조기 확립해야 한다는 기도의 평소 소신을 재차 강조한 것이었다.

2.2 아이즈 전후처분

지지부진하던 도호쿠 항복제번에 대한 전후처리가 드디어 12월 7일 기도를 포함한 신정부 고위관리가 참석한 가운데, 모반 제번주・가신에 대한 처분형태로 내려졌다.

> '상벌'은 '천하의 대전'으로 짐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천하의 衆議'을 모아 지극히 공평정대하게 털끝만큼도 잘못이 없도록 정해야 한다. (아이즈 번주)마쓰다이라 카타모리를 비롯하여 (센다이 번주)다테 요시쿠니 등을 '百官將士'로 하여금 논의토록 한 바, 각자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죄는 한결같이 '逆科'에 해당하며, 마땅히 '嚴刑'으로 처벌해야 한다. 특히 카타모리의 죄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노하는 바 '死'이며, 여전히 여죄가 있다고 상주한다. 짐이 곰곰이 생각해보건대, '政教'가 천하에 널리 알려지고, '名義'가 사람의 마음속에 분명히 각인되었다면, 본디 주군을 시해하는 신하와 지아비를 죽이는 아들은 없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짐의 '不德'으로 인해 '教化'의 길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700년 이래의 기강이 쇠퇴하고, 도리에 어긋나 혼란스러우며 나쁜 습관으로 나타난 지 오래다. 본래 카타모리의 경우는 유명한 문벌집안이자 관위 수여자이나, 오늘날은 '역모'자다. (이것은)카타모리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니고 반드시 주모자인 신하가 있다. 따라서 짐은 단호히 말하건대, 그 사실을 헤아려 그 이름을 용서하고, 그 정을 불쌍히 여겨 법으로 용서하여 카타모리의 '死一等'을 완화하고, 주모자를 誅殺하는 '非常의 寬典'에 처하고자 한다. 짐은 또한 바야흐로 지금부터 스스로 마음을 잡아 정치에 힘써 '교화'를 국내에 펼치고, '德威'를 해외에 빛나게 함을 희망한다. 너희 '백관장사'는 이것을 실현시키도록 노력하라.

상기의 천황의 처분 '조서'[12]에는 아이즈번을 포함한 도호쿠 항복제번의 모반

11) 『松菊木戸公伝』上, p.1057; 심기재, 위의 논문, p.276.
12) 『木戸日記』1, p.154; 『明治天皇紀』第1, pp.917-9; 内閣官報局(1912) 『法令全書』 <明治 元年> 第1036・1037 内閣官報局, p.378; 内閣 『勅語類・明治詔勅』 件名番号: 8, 件名: 松平容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 본래 대역죄로서 마땅히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중론이었으나, 아직 통일이 이루어지 않은 혼란스런 국내사정 등을 고려한 천황의 판단[13]으로, 도호쿠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아이즈 번주)마쓰다이라 이하 제번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반역'을 주도한 가신들을 처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천황 권위의 확립과 그 권위의 해외과시라는 신정부의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로써 기도의 희망대로 아이즈번 등의 중죄를 천황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인 '조서'를 통해 재확인한 후, 관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다.[14]

그렇다면 도호쿠 전쟁처분의 주요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조적' 아이즈번은 실제 어떤 처분을 받았던 것일까. 도호쿠 항복제번 가운데 유일하게 번자체가 폐지되는 멸번(滅藩)의 운명을 맞이했던 구아이즈번[15]의 마쓰다이라 카타모리・노부노리(喜德) 부자는 천황의 '조서'에도 언급된 것처럼 '死一等'을 감면[16]받은 후, 제3의 지역 즉 돗토리번(鳥取藩)・구루메번(久留米藩)에서의 위탁구금이라는 종신근신처분을 받았다.[17] 그리고 9월 22일 항복 후 군무관 통제하의 아이즈의 시오카와(塩川)・이나와시로(猪苗代)에서 각각 근신[18]하고 있었던 5000여

保等ヲ寛典ニ処スルノ詔;「東京城日誌」<明治 元年>第10(橋本博編(1934)『維新日誌』第2期第2巻 静岡郷土研究会), p.26; 多田好問編(1968)『岩倉公実記』中 原書房, pp.617-24; 勝田孫弥(1910)『大久保利通伝』中 同文館, pp.585-6; 東京大学史料編纂所編(1972)『保古飛呂比佐々木日記』3 東京大学出版会, pp.402-3, 이하『佐々木日記』3으로 약칭.

13)「東京城日誌」<明治 元年>第10, p.26;『岩倉公実記』中, p.618;『大久保文書』2, p.483;『大久保利通伝』中, p.586;『佐々木日記』3, p.403.

14) 심기재(2012), 앞의 논문, p.290.

15) 아이즈번 폐지 후, 구아이즈 번령에는 메이지 2년 5월 신정부의 직할현인 와카마쓰현이 설치되었다.

16) 太政官『太政類典』第1編 第217巻 件名番号: 56, 件名: 松平容保以下降賊ヲ処断ス附容保死一等ヲ減スル詔勅.

17) 그러나 10월 19일에 이르러 신정부는 번주 부자 및 그 가족을 도쿄로 송환할 것을 결정해, 11월 3일 그들은 도쿄에 도착해 근신생활에 들어갔다(『太政類典』第1編 第217巻 件名番号: 27, 件名: 白川口総督府長門肥前大垣三藩兵ニ命シテ松平容保父子及ヒ其老臣内藤某・介右衛門・等四人旧幕臣及ヒ諸藩降兵四百六十人ヲ東京ニ監送セシム尋テ至ル乃チ容保ヲ因ス降兵ハ各藩ニ交付シテ謹慎セシム;『동』 件名番号: 38, 件名: 阿州藩ニ命シ松平容保父子東京ニ護送セシム).

18) 越後口総督府에 명령해 아이즈 民政・鎮撫 등을 임시로 관리시켜왔던 鎮将府는 10월 12일 아이즈 항복인에 대한 임시처분을 결정해 士族・兵隊・官吏에게 근신을 명령하면서 신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쓰루가오카죠(鶴ヶ岡城) 내에서 항복한 아이즈 번사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명의 아이즈 항복인에게는 메이지 2년 1월 18일·20일, 각각 다카다번(高田藩: 현 新潟縣)과 마쓰시로번(松代藩: 현 長野縣)에서의 위탁구금처분명령이 내려졌다.[19] 그러나 마쓰시로번에서의 수용이 번 사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3253명은 6월 도쿄로 호송되어 增上寺山內·一橋御門內御宿屋·飯田元火消屋敷·小川講武所·山下御門內松平豊前守元屋敷·神田橋御門外騎兵屋敷·麻布眞田屋敷·護國寺에서 분산근신생활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머지 1742명은 다카다번의 高田寺町 지역 내의 제사찰을 활용한 형태로 근신생활을 보내게 되었다.[20]

한편 보신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하코다테(箱館)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신정부는 번정 궁핍 등을 이유로 장기수용에 난색을 표명하는 앞서의 제번에 아이즈 항복인을 영구적으로 맡길 수는 없었다.[21] 특히 다카다번의 경우, 마쓰시로번과 함께 신정부로부터 항복인을 위탁받으면서 3만석의 토지에 해당하는 수용비용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흉작으로 재정궁핍의 상황에 놓여있던 다카다번은 항복인 수용에 드는 제비용과 수용상의 어려움을 들어 위탁비용의 조기지급과 기타 제번으로의 분산수용을 요청하는 탄

이나와시로에서, 성밖에서 항복한 번사는 시오카와에서 근신하게 되었으나 최종 근신장소는 중앙정부의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10월 15일 大総督府는 (군무관 판사)中根雪江·中根善次郎 등을 아이즈 항복인 단속감독에 임명하여 항복인 업무를 감독하도록 조치했다(『明治天皇紀』第1, pp.864-5; 『太政類典』第1編 第217巻 件名番号: 16, 件名: 是ヨリ先鎮将府越後口総督府ニ牒シテ仮ニ会津ノ民政及ヒ鎮撫等ノ事ヲ管理セシム是日鎮将府会津降人ノ処分ヲ定メ士族兵隊官吏ニ謹慎ヲ命シ其事ニ与カル者ハ朝裁ヲ俟タシメ其余ハ悉ク放免ス并ニ口俸ヲ給シ婦女之ニ準ス其創者ハ官軍病院ニ入ルヲ許ス大総督府モ亦軍務官判事中根貞和·善次郎·高田藩士ヲ遣シテ降人ヲ監シ備前藩ヲシテ会津ヲ鎮セシム; 『동』件名番号: 21, 件名: 大総督府中根雪江等ヲ会津ニ派シ其地ヲ提理セシム); 維新史料編纂事務局(1938) 『維新史料綱要』9 目黒書店, p.543; 『東京城日誌』 <明治 元年>第2, p.2).

19) 『東京城日誌』 <明治 元年>第2, pp.1-2. 기도도 24일 양 번으로의 위탁이 결정되었음을 전하고 있다(『木戸日記』1, p.181). 후술하는 것처럼 아이즈 항복인은 당초보다 늘어난 13000명에서 15000여명으로 밝혀져 재정상황이 취약한 신정부는 그 처리비용 염출에 애를 먹고 있었다(『木戸文書』3, p.248). 또한 위탁받은 제번도 '藩力' 미약 등을 이유로 부분수용을 주장하고 있었다(池田嘉一(1969) 「維新哀史, 会津藩降伏人預り」 (上越郷土研究会編, 『頚城文化』27, p.35).

20) 会津若松史出版会編(1966) 『会津若松史』5 会津若松市, pp.226-7. 메이지 2년 1월 18일부터 21일에 걸쳐 다카다번으로 호송되어 온 아이즈 항복인의 수용상황에 관해서는 池田嘉一의 논문을 참조.

21) 池田嘉一, 위의 논문, pp.36-7. 이러한 상황은 비단 다카다번만이 아니라 위탁받은 제번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와 오무라는 후술처럼 제3의 지역, 예를 들면 홋카이도나 신설의 도나미번으로의 이주를 점차 구상하게 되었다고 본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원서를 제출할 정도였고, 급기야 신정부의 위탁보조비용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영양실조로 인한 병사・탈주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다카다번 등의 번정 상황은 메이지 원년 7월 이후 彈正臺 등의 신정부 제부서에 각각 보고[22]되어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영지몰수에 따른 아이즈 항복인 처리문제를 주요국정과제로 채택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상기의 제번에 위탁구금중인 항복인 처리에 대해 신정부내에서도 제번의 탄원과는 별도로 원년 후반기부터 제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가운데, 기도 타카요시는 후술처럼 항복인의 구제와 북방경비 등의 차원에서 그들을 에조치(蝦夷地) 즉 홋카이도(北海道)[23] 등으로 이주시켜 개척에 임하도록 하는 정치구상을 가지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Ⅲ장에서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아이즈 항복인(會津 降伏人)의 홋카이도 이주개척

3.1 明治 2년의 대응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도호쿠 항복제번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메이지 원년 12월 3일 아이즈를 포함한 제번의 항복인처리문제와 관련해 신정부는 제번의 公議人에 여론수집과 그 결과를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24] 이러한 정치상황 속에서 기도는 천황을 수행해 교토로 돌아가지 않고, 도쿄에 계속 남아 정치적 맹우인 군무관 부지사 오무라와 함께 후술처럼 아이

22) 『太政類典』第1編 第217卷 件名番号: 69, 件名: 会津降伏人三十余名謹慎中脱走. 또한 8월과 9월에는 항복인이 도쿄 근신중에 탈주하거나, 시오카와 근신지를 탈주한 항복인이 구막부 관료 등과 결탁해 역모를 꾀하다가 참수당하는 사건이 각각 발생하기도 했다(『太政類典』第1編 第217卷 件名番号: 70, 件名: 会津降伏人加藤兵次郎等東京ニ於テ謹慎中脱走ニ依リ刎首ニ処ス; 『동』 第1編 第217卷 件名番号: 72, 件名: 旧会藩亀田安兵衛等逆謀再挙ヲ企ルニ依リ刎首ニ処ス).

23) 메이지 2년 8월 15일 신정부는 종래의 에조치를 홋카이도로 개칭했다(『明治天皇紀』第1, p.175). 이하 에조치는 편의상 홋카이도로 기술한다.

24) 『佐々木日記』3, p.400. 신정부는 제번 공의인에게 10월 29일・11월 3일에도 도호쿠 제번의 항복인처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다(『太政類典』第1編 第217卷 件名番号: 36, 件名: 諸藩公議人ニ命シ奥羽北越降賊処置意見書ヲ東京城ニ呈出セシム; 『동』 件名番号: 44, 件名: 諸藩公議人ヲシテ奥羽北越降賊処置意見書ヲ非蔵人ニ呈出セシム; 『東京城日誌』 <明治 元年>第2, p.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즈 항복인 등과 관련해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었다.[25] 26일 항복인의 이송[26]을 전해들은 바 있었던 기도는 이듬해 1월 6일 오무라에 서한을 보내 그들의 임시근신장소였던 아이즈 지방의 시오카와・이나와시로로부터의 이동을 일단 정지시켰다.[27] 그것은 항복인의 새로운 근신지 지정을 둘러싸고 신정부 내에서 약간의 논란[28]이 있었던 탓으로, 결국 24일 기도는 아이즈 항복인처리 '朝議'에 참석해 마쓰시로번・다카다번 2번에 위탁 근신시키기로 결정했다.[29] 이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쓰시로번에서의 위탁수용이 번내 사정상 무리라는 이유로 3253명은 6월 도쿄로 호송되어 근신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다.

3.1.1 기도의 아이즈 항복인 인식과 홋카이도 이주개척 구상

한편 후술처럼 기도는 오무라와 함께 도쿄 근신중의 아이즈 항복인을 홋카이도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그 구상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년 12월 1일, 아이즈 처분과 관련한 천황 하문에 대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다만 그 죄를 미워한다'고 천황에 대한 군신의 죄를 범한 아이즈 번주・가신과 항복인의 죄를 물었던 것이지, 항복인에 대한 사적인 감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30]했던 기도는 그 말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이미 오무라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구아이즈번 출신의 가와이 젠쥰(河井善順) 등을 메이지 2년 1월 28일 소개받은 후,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항복인들의 궁핍한 생활상을 전해 듣고, 개인적으로 산조 사네나루(三條實愛: 議政) 등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위로금 1千兩을 전달하기도 했다.[31] 그렇다면 기

25) 『松菊木戸公伝』上, pp.1099-100.
26) 『木戸日記』1, p.167.
27) 『木戸日記』1, p.174; 『東京城日誌』<明治 元年>第2, pp.1-2.
28) 오무라는 메이지 원년 말로 추정되는 기도에게 보내는 서한 속에서, 아이즈 항복인의 岩城平으로의 이동을 계획했었으나 그곳이 적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어, 그 대체지역으로서 三丹으로의 이주를 고려중에 있음을 알렸다(木戸孝允関係文書研究会編(2007) 『木戸孝允関係文書』2 東京大学出版会, p.278, 이하 『木戸関係文書』2로 약칭). 그러나 와카마쓰 등의 어려운 지역사정을 고려한 나머지, 우선 5천명이 전술처럼 다카다번과 마쓰시로번으로의 이동이 결정되었다.
29) 『木戸日記』1, p.181; 『東京城日誌』<明治 元年>第2, pp.1-2. 기도는 이송 후에도 처자부모와 함께 일가를 구성하는 문제처럼 아직 해결해야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음을 지적하는 등, 아이즈 항복인의 근신생활에 유의했다. 이러한 기도의 항복인에 대한 인식은 후술처럼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25일에 항복인 위탁근신문제와 관련해 '조의'가 개최되었다(『大久保日記』1, p.16)
30) 『木戸日記』1, p.150; 『明治天皇紀』第1, p.919; 『松菊木戸公伝』上, p.1078; 『大久保日記』1, p.49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도는 왜 이와 같은 행동에 나섰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항복인을 홋카이도 등지로 이주시키려고 했었던 것일까. 기도의 구상목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즉 항복인 출신으로 기도와 함께 이와쿠라 사절단에 동행한 바 있었던 구사카 요시오(日下義雄)[32]가 기도로부터 받은 서한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서한의 '趣意'는 구아이즈번이 일단 '조적'이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때는 '維新初創'의 무렵으로 이미 '大赦의 은전'을 입었기 때문에 역시 '一視同仁의 국민'이다. 본래 23만석의 다이묘가 불과 3만석으로, 참으로 불쌍해 홋카이도에 '상당의 토지'를 수여해 가능한 한의 '편의'를 다해 구아이즈 항복인이 '생활'에 '곤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치적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으로 나누어졌던 것은 별 수 없다고 하나, '大敵'이 되어 '일시동인'의 천황의 자비로움을 입게 되었음은 아이즈 항복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기도 서한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기도는 아이즈 번주 이하 항복인이 신정부에 저항한 '조적'임에는 분명하나, 천황으로부터 대사면을 받은 이상 모두가 황국의 백성이며, 전후처분(멸번)으로 생활터전이 사라진 마당에서, 그들의 구제차원목적에서 홋카이도 등지로의 이주가 계획되었던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쿠가와 막부 말기이래의 조슈와 아이즈 사이의 악연[33]이라든지 사적인 아이즈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전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세간의 인식자체를 기도 스스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나아가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 했음을 구사카는 전하고 있었다.[34]

---

31) 日本史籍協会編(1985)『木戸孝允文書』3 東京大学出版会 覆刻, p.227, 이하『木戸文書』3으로 약칭;『木戸日記』1, p.182・188-90. 기도는 아이즈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아이즈번의 이전 영지에서의 재흥을 경계하면서도, 그들이 처한 궁핍한 상황과 구아이즈 번주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동정・이해하고, 어디까지나 똑같은 황국 백성인 아이즈인 모두에게 천황의 仁慈政治가 실현되기를 희망했다.

32) 구사카는 기도와 동향의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추천으로 사절단에 참가 후 미국에 유학했던 인물로, 長崎・福島県知事 등을 역임한 후 실업가로 활약했다. 기도의 서한은 메이지 4년(1871) 1월 26일 기도와의 첫 만남을 가진 구사카가 미국에서 귀국한 후, 기도를 만나 근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받은 서한이다(妻木忠太(1985)『史実参考 木戸松菊公逸話』村田書店 覆刻, pp.340-1).

33) 조슈와 아이즈의 관계가 악화된 사정에 대해서는 심기재(2012), 앞의 논문, p.266 참조.

34) 기도가 지적했던 것처럼 구아이즈번에 대한 전후처분에서 '조적' 아이즈 번주에 대한 죄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렇다면 기도가 누누이 강조한대로 사적인 감정에서 항복인을 미워했던 것이 아닌 그들의 구제차원에서 시작된 기도에 의한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 구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던 것일까. 도호쿠 평정 후 항복 제번지역의 민심불안을 크게 염려[35]하고 있었던 기도는 1월 30일, 아이즈 항복인 처리안이 군무관으로부터 신정부에 제출되자, 메이지 원년 말부터 주장해 온 바를 야마나카 세이츠(山中靜逸: 行政官 權弁事)에게 전달했다.[36] 그리고 2월 4일 오무라와 항복인문제를 협의한 바 있는 기도는 6일 아이즈 현지상황을 전하는 서한을 군무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일독한 후, 다음 날 항복인 등의 제문제 결정의 자리에 참석했다.[37] 그리고 기도는 8일 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 參與)에 서한[38]을 보내, 항복인 숫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항복인을 위탁한 전술의 마쓰시로번・다카다번 양 번에 위탁비용으로 3만석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 후 늘어난 숫자를 감안하면 도호쿠 점령지 9만석을 보태도 12만석에 달하는 항복인 처리비용이 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메이지 원년 봄 이래 신정부가 홋카이도 개척을 염두해 두고 온 이상, 항복인을 홋카이도로 이주시켜 개척에 종사시키는 경우 9만석을 상회할 정도의 초기비용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오쿠보를 비롯한 신정부 요로의 논의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비용이 소요되는 아이즈 항복인처분문제는 후술처럼 홋카이도 등지로의 이주개척을 시야

일부 사면하여 종신근신에 처하되, 대신 번주를 꼬드겨 관군에 저항하도록 한 가신을 처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아이즈번이 멸번된 상태에서 일단 주변 제번에 위탁근신토록 한 항복인을 천황의 인자정치를 구현하고자 구제차원에서 홋카이도 등지로 이주하도록 한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 대해, 당시 세간에서는 패자 입장의 구아이즈번을 포함한 도호쿠 항복제번 전후처분 자체가 가혹했고, 아이즈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 등도 기도 혹은 조슈의 아이즈번에 대한 사적인 증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당시의 기도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구아이즈번에 대한 전후처분의 가혹성만을 과대 강조하며,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조슈측에게 돌리려는 星亮一처럼 후세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된 측면이 있다(星亮一(2008)『偽りの明治維新』, 大和書房, pp.175-6).

35) 『木戸文書』3, pp.215-6・222-3; 『木戸日記』1, p.180; 『木戸関係文書』2, p.277.

36) 『木戸日記』1, p.185. 기도는 전년 말의 도호쿠 전후처분과정에서 야마나카와 함께 도호쿠 민정처리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동』1, p.147). 도호쿠 민정처리과정에서의 기도의 정치적 대응에 관해서는 심기재(2013), 「木戸孝允과 東北戦争 戦後民政処理」, 『歷史学報』218집을 참조.

37) 『木戸日記』1, p.188.

38) 『木戸日記』1, p.189; 『木戸文書』3, p.248; 『大久保関係文書』2, pp.378-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에 넣으면서 기도와 군무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기도・군무관의 아이즈 항복인 홋카이도 이주개척 총괄

이처럼 메이지 원년 후반기부터 아이즈 항복인문제를 주도해 온 기도와 군무관에 대해 신정부는 2월 9일 다음과 같이 각각 지시했다.[39]

> -군무관에 대한 하달
>
> 와카마츠(若松: 구아이즈 번령-필자 주) 지역 '항복인' 처분은 군무관에 '위임'을 명하므로, 제반사항을 처리토록 한다. 단 '항복인'의 '扶助手當地' 문제는 홋카이도 외, 기타 적당한 토지를 조사해 건의토록 한다.
>
> -기도 타카요시에 대한 하달
>
> 아이즈 '항복인' 문제는 군무관에 처분을 지시해 '當官'에서 갑자기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同官'과 협의해 처분토록 한다.

즉 신정부는 군무관에 아이즈 항복인 이주개척문제를 담당토록 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해결을 요구받고 있었던 처리비용문제는 항복인 스스로가 자급자족의 형태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지역을 홋카이도를 포함해 기타지역을 선정해 건의토록 조치하고, 나아가 기도에게도 항복인 이주개척문제를 군무관과 협조해 추진토록 명령하고 있었다. 요컨대 參與 기도와 군무관이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문제를 전담하게 되었고, 이때 홋카이도 이외의 지역도 고려대상[40]이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신정부는 20일, 이미 9일부로 기도와 군무관에 하달한 명령 즉 항복인의 이주개척추진과 관련해 홋카이도의 石狩・小樽・發作部 세 곳을 군무관의 관할지로 지정하고, 항복인을 그곳으로 옮겨 개척에 종사시킬 예정이므로 대상지역을 군무관에 양도하도록 하코다테부에 명령했다.[41]

---

39) 『東京城日誌』 <明治 2年>第4, p.5; 『太政類典』第1編 第127卷 件名番号: 62, 件名: 会津降伏人取扱ヲ軍務官ニ委任ス; 東京大学史料編纂所編(1966) 『明治史要』東京大学出版会 覆刻, p.125; 『明治天皇紀』第2, p.45; 『木戸日記』1, p.190; 立教大学日本史研究室編(1966) 『大久保利通関係文書』 2 吉川弘文館, pp.378-9, 이하 『大久保関係文書』2라 약칭.

40) 홋카이도 이외의 제3의 장소 선정은 후술하는 것처럼 아이즈 마쓰다이라 가문의 재흥허가에 이어 도호쿠 지방의 도나미번의 신설・항복인 이주로 이어졌다.

41) 『法令全書』 <明治 2年>第179, p.91; 『東京城日誌』 <明治 2年>第5, pp.3-4; 日本史籍協会(1997) 『百官履歴』1 北泉社, p.59; 『維新史料綱要』10, p.4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처럼 메이지 원년 봄부터 신정부의 홋카이도 개척논의에 적극적으로 발언[42] 해 왔던 기도는 항복인 구제차원에서 정치적 동반자로 당시 군무관의 실력자였던 오무라와 함께 아이즈 항복인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발탁되었고, 아울러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명분까지도 획득했다.

이처럼 군무관과 함께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사업의 담당자가 된 기도는 2월 10일, 홋카이도의 지리・사정에 정통한 자로 하코다테부 판사 부임을 앞두고 있었던 마쓰우라 타케시로(松浦武四郎)에게 서한[43]을 보내 '조적' 아이즈 항복인도 황국의 백성인 이상 차별 없이 대우하라는 천황의 의사를 존중하고, 나아가 신정부를 위해 봉사할 각오가 서 있는 1만 여명의 항복인을 구제할 목적에서 홋카이도로의 이주개척이 결정되어 자신과 군무관의 주관 하에 추진될 예정임을 전하고, 홋카이도 사정에 정통한 마쓰우라가 임무를 마친 대로 도쿄로 올라와 사업추진에 조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었다.

한편 군무관 부지사 오무라는 14일 함께 항복인처리문제를 담당하게 된 기도에게 신정부의 당면한 '급무'가 아이즈 항복인처리와 도쿄문제에 있음을 밝히며, 세상 사람들이 이 2문제에 주목하여 '御一新'의 '正否'를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권교체의 성공여부는 항복인 처리와 도쿄의 안정적 지배에 달려있는 관계로 여기에 진력할 각오임을 전하면서, 因州藩(현 鳥取縣)에 위탁한 항복인 2명에 대한 지시가 있기를 부탁했다.[44] 이에 기도는 같은 날 오무라에 보낸 답서[45]에서 앞서의 2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야 하며, 또한 항복인 처리는 어디까지나 군무관 중심으로 담당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비록 교토로 돌아가게 되

42) 메이지 원년 신정부의 홋카이도 개척정책과 관련한 기도의 정치적 대응에 관해서는 추후 별고(「明治 元年의 에조치(蝦夷地) 개척문제와 木戸孝允」)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43) 『木戸文書』3, pp.255-6. 한편 신정부는 2월 12일 마쓰시로번의 항복인 위탁을 면제하고 군무관에 양도할 것을 지시했다(『東京城日誌』 <明治 2年>第4, p.8). 13일 기도는 막말기이래 친교가 있는 에도 검객 출신의 사이토 신타로(斎藤新太郎)에게도 서한을 보내 因州藩에 위탁한 항복인 2명의 군무관 양도와 함께 자신과 군무관이 항복인 문제를 '총괄'하게 되었음을 전했다(『木戸文書』3, p.259).

44) 『木戸関係文書』2, p.279. 당시 도쿄에는 천황의 '東幸' 수행 차 상경했던 오쿠보 등의 신정부 요인들이 천황과 함께 교토로 돌아간 후, 정무 때문에 더 머물러 있었던 기도마저도 18일 도쿄 출발이 예정된 상태여서 그 정치적 공백이 컸던 만큼 사업추진의 공백을 오무라는 크게 염려하고 있었다.

45) 『木戸文書』3, p.26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어 '相談評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나,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를 가질 것임을 전했다. 또한 기도는 번 폐지후의 아이즈 항복인의 존재가 신정부의 중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될 것을 우려[46]해 오무라에게 항복인의 이주개척지로서 홋카이도 이외에 3만석 규모의 대체토지의 선정작업의 진행여부를 묻고 있었다.[47] 이것은 앞서의 9일자 군무관에 대한 지시 즉 홋카이도 이외의 대체지역 물색과도 관련되는 사항으로, 후술의 도나미번의 신설·항복인 이주로 연결되었다. 이처럼 기도는 항복인의 도나미번으로의 이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48] 요컨대 도쿄 출발을 앞둔 기도가 종래의 위탁제번 중심에서 군무관 중심의 항복인처리를 강조하고, 정치적 동반자 오무라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한편 도쿄 출발을 이틀 앞두고 마음이 바빠진 기도는 16일 오무라를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남긴 서한 속에서, 항복인 처분은 군무관이 전적으로 맡아 '착수'해야 할 사항으로, 스스로는 처음부터 그 착수에 '동의'를 표시할 생각으로 있었으며, 또한 항복인들을 수차례 면담해본 바, 그들 자신도 홋카이도 이주개척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어 자립할 수 있는 토지만 확보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상책'이 없음을 지적하고, 향후 전개될 군무관의 추진사업에 기대감을 표시했다.[49] 다음 날 군무관으로 오무라를 찾아간 기도는 항복인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50] 18일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신정부로부터 잠시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도는 22일 가슴통증 때문에 하루 종일 자택에서 요양을 한 후, 다음 날 동향의 마에바라 잇세(前原一誠: 越後府判事)에게 서한[51]

---

46) 松尾正人, 앞의 논문, p.13. 기도는 메이지 원년 10월 4일 오무라에 보낸 서한에서 이미 아이즈를 포함한 도호쿠 전후처분과정에서 국정수행의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浪人'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그 구제책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었다(『木戸文書』3, p.158).

47) 『木戸文書』3, pp.260-1.

48) 『木戸文書』3, p.260. 한편 5월 구아이즈번에 설치된 와카마쓰현에서도 현정의 안정차원에서 항복인의 도나미번으로의 조기이주승인을 신정부에 요청하고 있었다(松尾正人, 위의 논문, pp.21-4).

49) 『木戸文書』3, p.262.

50) 『木戸日記』1, p.193.

51) 『木戸文書』3, pp.269-70. 기도는 같은 날 오키 타카토(大木喬任: 参与)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정부다움은 인민으로 하여금 그 존재가치를 납득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설령 일단 죄가 있다 하더라도 관대히 처분한 이상은 오로지 정부에게 있어 유용한 것이 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을 보내,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과 관련해 그들과의 접촉을 통해 가엾은 사정을 알게 된 바, 이제 신정부도 항복인을 적대시하지 말고 황국의 백성으로 똑같이 대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홋카이도 개척문제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과 어려움이 존재함을 피력했다.[52]

한편 5월 10일 에노모토 타케아키가 이끄는 구막부 탈주군함세력과의 하코다테 전쟁이 평정되고, 21・22일 홋카이도 개척의 '開拓教導' 방법과 인구증가책의 이해득실에 관한 제관리의 의견을 묻는 천황의 두 번째 하문이 하달[53]되자, 기도는 아이즈 항복인의 이주개척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9일 도쿄에 도착한 이후, 6월 2일・3일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輔相)・이와쿠라(議定)・오쿠보(參與) 등과 면담을 갖은 후, 4일에는 오무라와 따로 만나 장래문제를 논의한 후 의견을 같이했다.[54] 그리고 11일 이와쿠라・산조, 15일에는 이와쿠라・오쿠보와 만나 정국상황을 논의했다.[55] 이처럼 기도가 3개월 여 만에 도쿄로 돌아오자마자 신정부 요인들을 잇달아 만나는 등 정치적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사업 때문이었다. 이때 기도는 항복인과 그 가족 17000여명의 7할인 12000여명을 홋카이도에, 그리고 나머지 3할에 해당하는 5000여명을 난부번(南部藩: 후의 도나미번)[56]에 각각 이주시켜 개간에 종사시킨다는 구상[57] 하에, 이주개척문제의 주

기를 바라며, 일단 죄가 있는 자를 정부가 적대시하고 원수 대하듯이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정부의 죄"에 해당한다는 지론을 피력했다(『木戸日記』1, p.195). 이처럼 기도가 한때 '조적'의 백성이었던 아이즈 항복인에 대해 황국백성으로 대우할 것을 주장함은 신정부가 같은 달 20일에 발표한 '人民告諭' 속에서, '教化'가 널리 미치지 않았던 아이즈를 천황의 의지로 관대하게 처분하고, 나아가 홋카이도 등의 지역에까지 '撫恤'을 베풀려고 한다'는 취지와 정치적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明治天皇紀』第2, pp.52-3).

52) 24일 이후 칩거하며 귀경 준비 중이었던 기도는 3월 3일 교토 도착이후, 오무라・오키 등의 지인들에게 서한을 보내 황국일본의 '基礎'・'興国興起'의 성패여부는 '誠意誠心'으로 제세력(정책)을 '誘導料理' 함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신정부의 확고한 조치가 없이는 정권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木戸日記』1, p.195・199; 『木戸文書』3, p.273・277・288・310-1).

53) 21일에는 '皇道興隆'・'知藩事選任'・'蝦夷地開拓'이 신정부의 6官・府県 등의 5등관 이상의 관원 그리고 親王・堂上 등에게, 22일에는 '皇道興隆'・'蝦夷地開拓'이 도쿄 재류의 제번주 등에게 각각 자문되었다(『太政官日誌』 <明治 2年>第53号, p.1・3; 『明治天皇紀』第2, pp.125-7; 『佐々木日記』4, pp.69-70; 『大久保利通伝』中, pp.675-7).

54) 『木戸日記』1, pp.230-1.

55) 『木戸日記』1, p.233; 『大久保日記』2, p.4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무관청 군무관의 실무책임자인 오무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술의 관할 이의제기 등의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했다. 한편 오무라도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이 군무관 관장이라는 신정부 방침에 따라 기도의 정치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會津降伏人始末荒目途'을 작성해 홋카이도 이주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즉 오무라는 우선 항복인 4000명을 홋카이도에 이주시킨 다음, 다음 해에는 8000명의 순서로 총 12000명을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가옥 3천호 등의 신축, 농구비용을 포함한 460만엔과 쌀 9만석의 지급을 신정부에 건의했다.[58]

3.1.3 기도·병부성 총괄의 아이즈 항복인 홋카이도 이주개척사업의 위기

적어도 메이지 2년 6월 상순경까지는 항복인 이주개척문제는 추진담당자와 관할관청, 그리고 대상지역 선정에 이르기까지 신정부방침에 따른 기도·군무관의 정치적 노력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의 기도 등의 노력이 후술의 정국변화로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즉 시급을 요하는 항복인 홋카이도 이주개척상의 시설·비용문제 등이 관제개혁과 맞물리면서 신정부내에서 쉽사리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기도는 현재의 정국상황 및 장래를 고려해볼 때, 실로 '개탄'해마지 않는 사항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6월 13일 오무라와 이토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59] 그리고 같은 날 기도는 오무라에게 "아이즈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문제는 본래 군무관이 떠맡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착수되었으리라고 생각되며, 어렴풋이 회계관과 모종의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하며 이주비용조달의 진척여부를 물었다.[60]

---

56) 아이즈 번령을 몰수당한 마쓰다이라 가문은 후술처럼 홋카이도 이외의 前南部藩領의 北郡·三戸郡·二戸郡 지역 내의 3만석(도나미번)을 우선 지급받아 아이즈 항복인들을 이주시키게 된다.

57) 『木戸文書』3, p.248·420; 星亮一(2009) 「会津藩斗南へ」三修社, p.22.

58) 星亮一, 위의 논문, p.22. 星는 이때 기도가 참여를 그만두고 待詔院学士(7/8부로 임명됨)라는 한직에 있었기 때문에 동향의 오무라를 통해 아이즈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를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전술처럼 2월 9일 신정부로부터 기도와 군무관은 홋카이도 이주개척문제의 추진을 이미 지시받고 있었다.

59) 『木戸日記』1, p.234.

60) 『木戸文書』3, p.37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요컨대 기도는 도쿄 부재중에 군무관이 관장하는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의 진행여부를 오무라에 묻고 있었던 것이나, 이후의 상황은 예상 밖의 난관에 부딪치고 있었다. 즉 7월 8일 신정부는 관제개혁을 단행해 군무관을 병부성으로 개칭[61]함과 동시에 태정관 산하에 사실상의 홋카이도 개척을 관장시키려는 개척사를 설치하고, 13일에는 나베시마 나오마사(鍋島直正: 前佐賀藩主)를 초대장관에 임명했다.[62] 개척사 신설에 따른 병부성과의 관장영역 설정, 관리 인선, 회계기초 확립 등을 둘러싸고 신정부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부성의 항복인 홋카이도 이주개척사업에 대한 관할이 애매모호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때마침 기도는 오쿠보 등의 주도로 단행된 태정관 개혁 등과 관련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삿초(薩長) 대립은 자칫 항복인 이주개척관장 문제의 대립으로 발전될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63] 10일 기도는 평소 우호적인 右大臣 산조를 만나 '時弊' 수건을 건의하는 자리에서, 신정부의 방침 미정립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64] 그리고 병제문제를 둘러싸고 사쓰마파와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었던 오무라를 만나 장래의 '軍務' 구상, '時勢의 弊' 등의 구제방법을 논의하고 견해를 같이했다. 다음 날 찾아 온 오쿠마 시게노부, 이토 히로부미와도 정국상황을 논의하며 크게 한탄해마지 않았다.[65]

한편 사쓰마 주도의 개척사 신설과 관련해 장관 포스트를 노리고 있었던 나

61) 오무라는 兵部大輔로서 군무관 부지사 시절과 마찬가지로 실무상의 최고 책임자였다.
62) 『明治天皇紀』第2, p.150・155; 『太政官日誌』 <明治 2年>第82号, p.3.
63) 職員令 개혁・知藩事 인선・兵制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쓰마와 조슈를 각각 대표하는 오쿠보와 기도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었다(『木戸日記』1, pp.241-2; 『佐々木日記』4, pp.93-4・119-20; 松尾正人, 『維新政権』, p.123). 즉 기도는 7월 3일 등청해 앞서의 관제개혁・제관청 인선 등에 관해 진척상황을 청취했으나 지론과 상당부분이 달라 있었고, 또한 누누이 지론을 건의했음에도 수용되지 않고 개혁내용 자체도 '불철저'한 것임에 크게 실망하여 논의도 하지 않고 퇴청했다. 8일에는 기도 본인의 동의없이 그동안의 격무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오쿠보와 함께 한직인 대조원학사에 임명되자, 여기에 반발해 다음날 곧바로 사퇴했다. 그리고 25일에는 지인(福羽文三郎)에게 오쿠보・이와쿠라 주도로 단행된 관제개혁 등에 대표되는 최근의 태정관의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우려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장래가 매우 걱정된다며 우회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었다(『木戸日記』1, p.240・242-3・249; 日本史籍協会編(1983) 『岩倉具視関係文書』4 東京大学出版会, p.288・290, 이하 『岩倉関係文書』4로 약칭).
64) 『木戸日記』1, p.243・246-7.
65) 『木戸日記』1, p.24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베시마는 11일 오쿠보를 만나 '開拓一條'에 관해 모종의 대화를 나눈 지 이틀 만에 초대 개척사장관에 임명되었다.[66] 그리고 16일에 이르러서는 오쿠보가 홋카이도 개척문제가 대강 확정되었음을 선언했다.[67]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서 20·22일에는 기도 등의 조슈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조슈 출신의 히로사와 사네오미(廣澤眞臣: 民部大輔)를 겸임 형태로 개척사 出仕에, 나베시마와 동향의 시마 요시타케(島義勇)를 개척사 判官에 임명하는 인사조치가 전격 단행되었다.[68] 이처럼 오쿠보는 실질적으로 개척사 신설 등을 주도하면서도 홋카이도 개척과 관련해 이미 아이즈 항복인 이주를 추진하고 있었던 조슈측의 기도와 병부성(오무라)의 반발을 고려해, 명목상으로는 사가파(佐賀派)가 주도하는 것처럼 연출하면서 조슈 출신의 히로사와를 살짝 끼워 넣는 고도의 정치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이로써 태정관 개혁 등에 있어 이미 오쿠보에게 정국주도권을 빼앗기고, 나아가 병제개혁 등을 둘러싸고서도 오쿠보와 첨예한 갈등상태의 기도에게 있어, 홋카이도 개척관장문제는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관할관청이 기존의 병부성에서 자칫 잘못하면 신설의 개척사로의 이관이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요컨대 기도와 병부성(오무라) 중심의 아이즈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의 주도권이 오쿠보 등의 정치공작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었던 것이다.[69]

그렇다면 이러한 돌발적인 정치상황 변화에 대해 기도와 병부성은 어떤 반응

66) 『佐々木日記』4, p.132. 막말기 단계에서부터 홋카이도 개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미 개척독무에 임명된 상태였던 나베시마는 오쿠보를 찾아가 밀담을 나눈 후, 나베시마의 개척사장관, 후술의 시마 요시타케의 개척사 판관 임명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나베시마와 시마가 비록 홋카이도 사정에 밝았다고 하나, 기도(조슈파)로부터 사쓰마·사가파의 정치적 담합이라고 오해받기에 충분했다.

67) "開拓議事有之, 大綱相決す"(『大久保日記』2, p.53). 한편 오쿠보는 16일 아침 찾아 온 사가 출신의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參議)에게 태정관 개혁 등의 정체개혁·인선·개척사로의 관할변경문제와 관련해 '木戸一派'가 대단히 '불평'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한 후에, 그러나 이는 번복될 수 없는 점임에 소에지마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大久保日記』2, p.53; 『佐々木日記』4, pp.136-7).

68) 『職員録』 <明治 2年 9月>, p.65.

69) 변경과정에는 태정관 개혁 등을 주도한 사쓰마측의 오쿠보와 그와 평소 친밀한 관계의 이와쿠라 그리고 사가측의 소에지마·나베시마 등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메이지 3년 3월 사사키 타카유키(佐々木高行)는 전년이래의 정국상황에 대해 "삿초는 서로 의심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가인도 오쿠마는 조슈측에, 소에지마는 사쓰마측에, 도사 세력도 고토·이타가키는 기도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평했다(『佐々木日記』4, p.29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을 보이고 있었던 것일까. 먼저 병부성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업무를 주관하고 있었던 병부성은 전술의 정치상황에 크게 반발해 24일 관할변경조치 가능성 등으로 인한 입지 약화와 성내 상황의 이유를 들어 홋카이도 개척포기청원서를 태정관 사무국인 辨官에 제출했다.[70]

> 홋카이도 多城國에 구아이즈 '항복인'을 '이주개척'시키려는 문제는 일찍이 당성에 위임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홋카이도 '개척사'에 명령이 내려져 병부성 '관할'이 전부 '개척사'로 이관되지 않고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하므로, 이후 (병부성 지배지)다성국도 모두 '개척사 관할'로 해주기 바랍니다. 병부성은 아무래도 업무가 많고 여러 부서를 상대하게 되면 업무차질도 예상되기 때문에 '개척' 관련의 문제는 모두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태까지의 관계자가 다성국에 출장상태이고, 상당히 '개척'에 의욕도 가지고 있으니 그대로 써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복인'의 이주에 관련해서 이미 쌀・소금・기타 잡물을 운송할 생각에서 군함 한 척에 선적해 모레 26일에는 도쿄를 출항할 예정이니 서둘러 지시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무래도 날짜가 지연되어서는 '항복인' 이주가 금년 중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어제 후나고시 마모루(船越衛)에게도 이야기해 둔 바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니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정관의 요로인 참의 앞으로 보내는 일명 '蝦夷地開拓返上原書'로도 부르는 청원서에서, 기도의 정치적 동반자 오무라가 실질적인 실력자로 있는 병부성은 표면상으로는 업무 폭주 등으로 아이즈 항복인 이주개척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개척포기를 운운하고는 있으나, 실은 태정관의 일관성 없는 갑작스러운 관할방침 변경에 크게 반발하여 항복인 이주개척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내던지기 식의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병부성의 청원내용은 후술의 오무라가 기도에 보내는 서한에서도 재확인된다. 한편 이런 상황을 기도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기도는 23일 오무라를 찾아가

70) 병부성 지배지 多城国은 田城国의 오기로 보이며, 田城国은 홋카이도의 石狩・発作部・小樽内의 지역을 가리킨다. 이때 병부성은 항복인의 이주개척담당은 포기하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이주개척에 관여해왔던 관리 내지는 이주개척에 필요한 물자수송만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太政官『公文録』<明治 2年>第16巻 件名番号: 13, 件名: 蝦夷地開拓関係御免等ノ儀申立).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장래사건'을 논의한 후, 다음 날 컨디션 난조에 빠져 자택에서 요양중에 찾아온 이와쿠라의 사자 나와(名和)에게 오쿠보와 유착관계의 이와쿠라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며, 장래의 '보좌'문제를 논의했다.[71] 같은 날 이토에 서한을 보내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72]한 바 있었던 기도는 26일 실의에 빠져있을 오무라에 아래의 서한을 보냈다.[73]

> 홋카이도 문제는 '개척' 관장과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의견을 낸 결과 병부성 관할로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은 알 길이 없으나 작년 겨울 이 문제는 선생에게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한 숙고 끝에 단호히 결정되었습니다. (아이즈 항복인)1만 여명의 거주장소와 나아가 '불모지'를 힘들이지 않고 개척하는 '良策'은 '공사'에 있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되어,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모범적인 사례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진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병부성 관장이) '와해'되어서는 참으로 '유감천만'입니다. 결코 개척에 충분히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필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1만 여명을 위해서 오무라를 위해서도 착수하지 아니하면 '유감천만'한 일입니다. 이 같은 사정이므로 가능한 한 병부성에서 떠맡아 '장래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부디 계속해서 맡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서한을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 기도가 언제부터 아이즈 항복인에 의한 홋카이도 개척에 관심을 두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메이지 원년 3월부터 홋카이도 개척에 관심을 두어 왔던 기도가 도호쿠 평정 후인 그 해 겨울부터 오무라에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문제를 제안해, 마침내 다음 해 2월 9일 기도 자신과 오무라가 실력자로 있는 병부성의 전신인 군무관이 신정부로부터 이주개척담당자 및 주관관청으로 각각 선정되어 함께 착수를 위한 정치적 노력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앞서의 정치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에 대한 확고한 기도의 의지가 재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홋카이도 이주개척사업을 어렵게 하는 전술의 제반사정으로 개척포기청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동요의 모습을 보이는 오무라에게 기도는 아이즈 항복인

71) 『木戸日記』1, p.248.
72) 『木戸文書』3, p.399.
73) 『木戸文書』3, pp.402-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을 통해 신정부 이주개척정책의 모범사례를 남기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착수하려 했던 초심을 잃지 말고, 병부성이 계속해서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태정관 개혁・지번사문제・병제개혁 등의 정국현안에서 오쿠보 등의 사쓰마파에게 계속 밀리고 있었던 조슈파의 거두 기도에게 있어 홋카이도 이주개척문제는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정치적 사활이 걸린 중대문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기도는 전술의 이와쿠라・산조 등의 신정부 요인과 동향의 이토 등에게 실망감을 표시하거나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고, 오쿠보 등의 정치공작 등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일관성 없는 신정부정책에 질린 나머지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오무라의 동요하는 마음까지도 잡으려고 애써 노력했던 것이다.

한편 이미 개척포기청원서를 제출한 후, 앞서의 기도 서한을 받은 오무라도 27일로 추정되는 서한을 기도에게 보냈다.[74]

ⓐ '홋카이도 개척' 문제는 개척사가 신설되어 한 기관이 '관할'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 병부성(추진의 아이즈 항복인 이주개척)도 개척사 '관할'이라고 듣고 있으며, 개척사의 '지배'를 받아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부성은 분주한 가운데 개척문제에 관여하지 않아도 될 상당한 업무가 있으므로 전부 개척사에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田城國 일대를 병부성이 개척하기로 정부결정이 나 명령도 내려졌는데, 불과 50일도 지나지 않아 이런 정도의 '대사건'이 갑자기 바뀌는 모양이 되어서는 정부 지시도 믿을 수 없고, 깊게 관여하지 않고 손을 떼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 또한 시급히 지장이 있는 것은 土州船에 명령을 내려 이불, 소금, 쌀 등을 선적해 그저께 25일 출발예정으로 있었으나, 앞서의 사정으로 연기되어 토주선의 출발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4, 5년의 (앞을 내다보는)결정을 내리지 않고서는 진척은 어려울 것이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도중에서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안으로는 아이즈 항복인 2만 여명의 처분이 있고, 밖으로는 홋카이도 개척의 중대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병부성에서도 '장래 목적'이 있는 이상, 무리하게 떠맡아 종래대로 관여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봐야 할 것이나, 갑작스

74) 『木戸関係文書』2, pp.280-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럽게 바뀌어 버리고 바빠서 병부성의 문제조차 벅찬 상황에서 이렇게 귀찮은 일을 남겨서는 병부성의 제관리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해 '개척'문제는 개척사에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 또한 개척사에 대해 언급하자면, 개척사는 아직 '회계' 전망도 없으며, 단지 관리 수준에서 홋카이도 전 지역을 일시에 착수한다 라는 논의로서, 도저히 금년 중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이미 이번의 토주선의 출발정지로 병부성의 아이즈 항복인 이주개척사업도 지체되어 불과 500명이 홋카이도로 이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또한 5년, 10년 동안 병부성에 위임하여 충분히 홋카이도를 개척한 후에는 홋카이도 전 지역을 (개척사가)관할해도 특별한 지장은 없다고 생각되어 앞장 서 떠맡았습니다. 그러나 개척사가 전체를 '관할'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며 '결의'해버리는 식의 갑자기 바뀌는 꼴사나움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홋카이도 개척문제를 누누이 설명해서 수긍해 10년 정도의 위임형태로 된다면, 후나고시 마모루(船越衛)에게 이야기해 둔 바도 있고 하니 (병부성 제관리들도)납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무라는 ⓐ에서 신정부가 병부성에서 신설의 개척사로 갑작스럽게 관할변경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앞서의 홋카이도 이주개척포기청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전후사정과 함께 정부정책에 깊은 불신감을 갖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에서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아이즈 항복인 이주개척에 필요한 물자수송작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항복인 이주개척을 포함한 홋카이도 개척문제는 중대문제로서, 장기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하여 부득이 병제개혁 등의 할 일 많은 병부성이 포기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재차 설명하고 있다. ⓒ에서는 홋카이도 개척문제를 전담하기로 된 개척사는 신설기관으로 아직 재정문제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식의 홋카이도 개척론만이 존재한 상태에서, 관할권 변경다툼이라는 상황변화에 따른 출발정지로 병부성의 항복인 이주개척사업도 불과 500여명 수준의 소규모 이주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75] 마지막으로 ⓓ

75) 이날 천황 출석의 小御所회의에서는 병부성 관할의 石狩로의 아이즈 항복인 수 백 명의 이주개척이 결정되었다(『大久保日記』2, p.61; 榎本洋介(2009) 『開拓使と北海道』 北海道出版企劃センター, p.5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에서는 병부성이 적어도 5년에서 10년 동안 항복인 이주개척을 포함한 홋카이도 개척사업을 진행한 후 개척사에 넘긴다는 양해 하에 떠맡았는데, 하루아침에 신설의 개척사가 독점해 관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도록 공작한 신정부 일각의 정치적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을 신정부 요로에게 재차 설명하여 병부성으로의 10년 정도의 장기위임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다면, 병부성 제관리들도 이를 납득해 개척사업에 노력해 줄 것이라며, 여전히 홋카이도 개척사업에 대한 강한 미련이 남아 있음을 언급하고 있었다.[76] 이러한 병부성의 실력자 오무라의 생각은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을 구상해 추진하고자 했던 초심을 생각해 홋카이도 개척포기를 재고해달라는 앞서의 기도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신정부가 애당초 아이즈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이 병부성(군무관) 관장임을 인정해 추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쿠보 등의 특정세력이 개입해 개척사 관장이라는 형태로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자, 기도는 포기청원서를 제출했던 오무라를 설득한데 이어 같은 날인 27일 輔相 산조·右大臣 이와쿠라를 만나 자신의 견해를 강력히 피력했다.[77] 결과적으로 신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으로 병부성이 홋카이도 개척문제에 손을 떼게 됨으로써,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에까지 차질을 빚게 될 것을 크게 염려한 기도는 앞서의 세 사람에 이어 이번에는 변경추진의 당사자인 오쿠보를 찾아가 강력히 항의해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78] 애당초 병부성과 함께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의 주요 담당자인 기도의 강력한 반발이 있은 데다가, 보신전쟁 종식 이후 신정부의 중앙집권화를 위한 기반작업 추진에 있어 조슈를 대표하는 기도의 정치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오쿠보도 인식하고 있었던 터라, 당초에는 기도파의 '불평'을 인지하면서도 정책의

76) 이때 병부성도 홋카이도 개척사업은 궁극적으로 개척사 관장이 바람직함에 동의하고 있었으나, 특정 세력의 입김으로 신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여 아이즈 항복인의 이주개척사업에 차질이 발생된 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이다. 재정적인 면에서의 개척사의 한계성을 언급한 오무라의 지적대로 홋카이도 개척사업은 신정부가 메이지 2년 7월 22일 分領支配 선언(『太政官日誌』<明治 2年>第83号, p.1; 『法令全書』<明治 2年>第660, p.275)에 이어, 8월 15일 11国 86郡으로 분할된 홋카이도를 17일 병부성을 포함한 諸藩·士族·庶民 등에게 할당해 개척이 추진되게 되었다(『法令全書』<明治 2年>第734·第745, pp.298-9·302; 『太政官日誌』<明治 2年>第91号, pp.1-9).

77) 『木戸日記』1, p.249.

78) 『木戸日記』1, p.250; 『松菊木戸公伝』下, p.118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절대 불변을 고수하려 했던 오쿠보도 이때는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79]

이처럼 어려운 정치적 노력 끝에 일단 아이즈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을 병부성 관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었으나 심사는 편치 못했던 기도는 지병 요양차 도쿄를 떠나 하코네로 향했다.[80] 그러나 요양지에서도 줄곧 이주개척문제에 매달렸다. 즉 기도는 5일 오무라에 서한을 보내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문제의 병부성 관할로의 복귀를 전하면서도, 사업자체가 작년 겨울 '百年의 전망'에서 올해 2월 9일 결정된 바 있으나, 지금에 이르러 '동요'하는 바람에 전체계획을 그르칠 뻔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재차 언급했다. 기도는 아울러 동향의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造幣頭)에게도 자신의 부재를 대신해서 정치적 진력을 부탁했음을 밝히면서 병부성 관장 하에 이주개척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줄 것을 재차 부탁했다.[81] 한편 심신이 매우 피곤해 있던 차에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문제를 비롯한 정국의 돌아가는 형세마저 오쿠보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반발해 하코네로 요양을 떠나버린 기도에 대해 정국상황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평소 우호적이었던 산조는 러시아의 남하에 따른 홋카이도 상황을 우려해 기도의 귀경을 독촉[82]하고, 또한 동향의 이토도 14일 러시아의 홋카이도로의 남하 가능성과 그 대책협의과정에서의 조슈파를 대표하는 기

79) 『大久保日記』2, p.53. 그동안 독주해왔던 오쿠보파는 당면한 대내외 위기(보신전쟁 종식후의 국내안정·관제개혁의 후유증 최소화·러시아 남하에 따른 러일 대립) 속에서 불가피하게 기도와 손을 잡고 국정의 제영역에서 '薩長合一'을 이뤄 신정부의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는 국가적 책무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大久保日記』2, p.69; 『佐々木日記』4, p.216·313). 사쓰마와 조슈를 각각 대표하는 오쿠보와 기도는 정국운영상, 이러한 정치적 대립과 협력을 줄곧 반복하고 있었으나, 보다 더 현실적인 요인으로서는 보신전쟁 등으로 신정부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오쿠보 등의 주도에 의한 관제개혁의 결과 탄생되어 에조치 개척을 위임받은 신설의 개척사가 에조치 전 지역을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과 인원이 매우 부족해 개척사업을 실천에 옮길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사할린 영유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갈등마저 대두된 상황에서 제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개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제세력이 개척의 부담을 나눠 갖는 식의 분령지배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사정도 고려되었다고 생각한다.

80) 『木戸日記』1, p.250.

81) 『木戸日記』1, p.250; 『木戸文書』3, p.411; 『松菊木戸公伝』下, p.1182·1188. 이때 기도는 오무라의 높은 식견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으로 인해 시일을 허비하여 아이즈 항복인 이주개척에 필요한 물자를 실은 토주선의 출발연기에 따른 그 '손익'이 매우 큼을 지적하기도 했다.

82) 『松菊木戸公伝』下, p.118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도의 부재를 크게 우려해 산조의 귀경요청에 응해줄 것을 적극 권유했다.[83] 이에 기도는 15일 이토에 보낸 답서에서 신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결정의 난맥상과 아이즈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사업에 전념하게 된 전후사정을 재차 언급했다.[84]

ⓐ 어리석은 나의 의견으로는 홋카이도만이라도 확실하게 '보유' 목적을 세워야 한다고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작년 말 도쿄 재류의 신정부 요로를 설득해 아이즈 항복인을 홋카이도로 이주시켜 '개척'의 목적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며, (병부성의 전신인)군무관에도 취지를 설명하고 논의했습니다. 군무관에서도 기간을 정해 '성공'을 달성한다는 '약정'까지 하고 순차적으로 그 '수단'을 강구해왔습니다. 어쨌든 아이즈 항복인을 이주시키는 일은 '급무'로서, 그들은 온갖 어려움을 견뎌 온 사람들로서, 가장 중요한 1만 여명의 인원을 이주시키는 일은 참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바람직한 일로서, 그것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어서는 '성공'의 목적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수차례의 고민 끝에 필사적으로 '진력'해왔습니다.

ⓑ 그런데, 이미 이번 (토주선)출발 전에 신정부의 지시가 바뀌어 군무관의 '총괄'을 해제하고 개척사로 이관시켰다고 합니다. 이 일 하나로도 결코 '장래의 목적'을 확립하기 어려운 셈으로, 비록 군무관에 (아이즈 항복인 이주개척) '관할'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군무관에서 반드시 다하는 것은 아니고, '성공' 후에는 개척사에 소속됨은 당연한 일입니다. 개척사가 '개척'하는 이유는 홋카이도 전도의 형세를 '일람'하고 한쪽 구석이라도 '개척의 목적'을 세워 정성을 다하고자 할 때는 특히 그 '정실'을 파악한 후, 마음을 열어 '신임'하고, 그 '실행'을 감독해야 할 때만이 주변의 성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어쨌든 작은 권력을 다퉈 마을유력자의 논둑길을 이웃 마을이 빼앗는 듯한 생각에서 전체국면을 그르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나도 가능한

83) 『木戸日記』1, pp.255-6; 『木戸関係文書』1, pp.237-9; 『松菊木戸公伝』下, p.1180. 그리고 8월 17일 동향의 히로사와 사네오미도 러시아의 남하 가능성에 따른 홋카이도 보전이 위태로워진 정국상황과 아이즈 항복인의 이주개척사업을 본격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기도가 이와쿠라의 귀경 요청에 적극 응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때 히로사와는 홋카이도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오무라가 지적한 것처럼 "오전에 일단 결정되었음에도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어 오후에 바뀌는 모습"임을 전하면서, 조슈파를 대표하는 기도가 정책결정과정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松菊木戸公伝』下, pp.1189-90).

84) 『木戸文書』3, pp.420-2; 『木戸日記』1, pp.255-6; 伊藤博文関係文書研究会編(1976) 『伊藤博文関係文書』4 塙書房, pp.191-2, 이하 『伊藤関係文書』4로 약칭; 『松菊木戸公伝』下, pp.1183-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원을 이주시켜 소야(宗谷) 쪽부터 시작하여 요충지에는 후일 부현도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며, 결국 이 문제 전체는 개척사의 임무로 내부에서 작은 일을 다투는 것보다 내부를 결속시켜 러시아인의 야욕을 꺾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해 정말로 요전의 처사에 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작년 이래의 '고심'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장래를 생각해보더라도 지극히 '유감'이어서, 이미 (토주선)출발 전 2, 3일 동안 크게 '격론'를 벌인 후 산조·이와쿠라 2卿에 건의한 끝에 드디어 29일 아침 종래대로 정부 명령이 원점으로 돌아갈 쯤, 오쿠보도 승낙해서 겨우 안심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홋카이도에서 그 토대를 닦아 놓지 않으면 사할린도 결코 손에 넣은 일은 어려우며 다만 위안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홋카이도에 기초를 반드시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後略).

ⓐ에서 기도는 러시아의 홋카이도 남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홋카이도의 일본영토화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작년 말부터 신정부 요로 및 군무관을 상대로 시급한 당면과제인 아이즈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과 그 관장기관으로서 군무관이 선정되는데 정치적으로 진력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 ⓑ에서는 이주개척사업의 관할기관이 군무관에서 개척사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필요물자를 실은 선박이 출발 직전에 출항이 정지되어 사업지연이 초래되고, 또한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을 통해 홋카이도의 개척과 북방경비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점은 기도가 오무라와 마찬가지로 병부성이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홋카이도 개척사업을 계속해서 떠맡을 생각은 전혀 없으며, 이주개척사업 자체만 본궤도에 올려놓은 후에는 개척사업 전반은 신설의 개척사가 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병부성의 담당영역을 침해하려는 개척사를 비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에서는 관할기관의 갑작스러운 변경이 아이즈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을 위한 그동안의 정치적 노력을 무위로 돌아가게 만들고, 또한 홋카이도 방어를 통한 사할린 점유라는 장래의 대외목적을 달성하는데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국 스스로가 나서 정부 내 격론을 거쳐 산조・이와쿠라에 대한 건의, 그리고 변경의 당사자인 오쿠보의 동의를 얻은 끝에, 일단 병부성이 원래대로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을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재결정되었다는, 그간의 우여곡절 많았던 정치사정을 구체적으로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변수의 등장 즉 러시아의 사할린으로의 남하에 이어 홋카이도마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신정부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었으나, 제세력간의 충돌을 피하고 내우외환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신정부는 우선 개척사 설치에 따른 명칭변경을 검토해 15일 종래의 에조치를 홋카이도로 개칭하고, 또한 17일에는 재정 미확립의 개척사의 한계를 인정해 홋카이도 개척을 병부성・제번 등에게 분담시키는 전술의 홋카이도 분령지배정책을 발표했다.[85] 이처럼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새로운 돌발변수가 나타난 가운데, 신정부는 홋카이도 개척을 '皇威降替'의 공간이자 '급무'로 인식하고, 토지 개간・이주자 증가에 의해 북방으로부터 러시아의 위협을 막는 것이 홋카이도 개척목적임을 들어 공가 출신의 히가시쿠제 미치토미(東久世通禧)를 2대 개척사장관에 임명했다.[86] 그리고 9월 2일에는 특별관대조치에 따른 아이즈 항복인의 홋카이도로의 '이주'가 병부성에 최종 통보되었다.[87] 이에 따라 병부성은 관할하의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쿄에서 근신 중인 항복인과 그 가족 103가구의 1진 338명이 조슈 출신의 이노우에 야키치(井上弥吉) 인솔 하의 미국 기선 얀시호에 탑승해 홋카이도의 오타루(小

85) 『佐々木日記』4, p.150; 『明治天皇紀』第2, p.175・177. 이때 병부성은 태정관으로부터 石狩国의 石狩郡, 後志国의 高島郡・小樽郡 총 3郡의 지배를 명령받았다. 아울러 태정관은 개척사에 병부성으로의 3郡 양도를 명령했다(『太政官日誌』<明治 2年>第91号, p.9; 『公文録』<明治 2年>第16巻 件名番号: 13, 件名: 蝦夷地開拓関係御免等ノ儀申立). 그리고 후술의 9월 2일 병부성에 항복인 홋카이도 이주개척 승인통보 후인 5일에는 石狩国의 浜益郡, 厚田郡의 忍路コツ, 札幌郡, 札幌郡의 ツイシカリ, 後志国의 忍路郡, 余市郡, 美国郡, 古平郡, 2国 내의 총 6郡(『法令全書』<明治 2年>第851, pp.338-9; 『太政官日誌』<明治 2年>第95号, p.4; 『公文録』<明治 2年>第16巻 件名番号: 19, 件名: 北海道ノ内両国本省支配ノ旨達), 14일에는 後志国의 太櫓郡・瀬棚郡, 胆振国의 山越郡, 釧路国의 白糠郡・足寄郡・阿寒郡, 三国내의 총 6郡의 개척지배를 추가로 명령했다(『法令全書』<明治 2年>第872, p.361; 『太政官日誌』<明治 2年>第96号, pp.7-8; 『公文録』<明治 2年>第16巻 件名番号: 24, 件名: 北海道国々ノ内本省支配ノ儀達).

86) 『太政官日誌』<明治 2年>第92号, p.7; 『明治天皇紀』第2, p.180; 『大久保日記』2, p.61.

87) '元会津降伏人格別之寛典ヲ以テ北海道へ移住被仰付候事'(『法令全書』<明治 2年>第840, p.336; 『太政官日誌』<明治 2年>第95号, p.1; 『維新史料綱要』10, p.2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樽)에 21일 도착한데 이어 10일 후인 30일에 2진 98가구가 도착했다.[88] 사업자체는 약 700여명에 이르는 소규모 이주로서 이주숫자는 병부성의 당초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으나, 관할권을 둘러싼 첨예한 권력투쟁 끝에 얻어낸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은 기도・오무라의 희망대로 마침내 일부 실현되었다.

한편 신정부는 앞서의 이주승인에 이어 기도가 하코네에서 돌아 온 당일인 26일, 한때 '조적'이었던 아이즈 전번주 마쓰다이라 카타모리 등의 죄를 완전사면하고, 그의 적자 마쓰다이라 카타하루(松平容大)의 가독상속을 허용했다.[89] 그리고 11월 3일에는 마쓰다이라 가문재흥을 허가받은 카타하루에게 화족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陸奥国' 내의 3만석 지배를 명령했다.[90] 그리고 메이지 3년 1월 5일에는 근신이 해제된 항복인 4700여명과 그 가족을 포함한 2800가구 약 17000여명을 신설의 도나미번에 이주시켜 지배하도록 조치했다.[91] 이처럼

88) 星亮一『会津藩斗南藩へ』, p.24.

89) 内閣,『勅語類・明治詔勅』件名番号: 20, 件名: 徳川慶喜・松平容保以下ヲ寛有ニ処スルノ詔書.

90)『法令全書』<明治 2年>第938・944, pp.381-2・384;『太政官日誌』<明治 2年>第103号, p.2;『維新史料綱要』10, pp.215-6. 3만석은 무쓰국(陸奥国)의 北郡・三戸郡・二戸郡 지역으로 이곳에 도나미번이 신설되었다.

91)『法令全書』<明治 3年>第8, p.3;『太政官日誌』<明治 3年>第9号, pp.1-2;『明治天皇紀』第2, p.250;『佐々木日記』4, pp.257-8. 도나미번으로의 이주구상은 메이지 2년 5월 이후, 구아이즈 번령을 직할지배하고 있었던 와카마쓰현이 현내 거주의 아이즈 항복인의 존재가 치안악화 등의 요인으로 작용되어 현정이 매우 혼란하다는 이유로 현정안정의 대책으로서 아이즈 항복인이 바라고 있었던 松平家의 재흥 및 그들의 도나미번으로의 조기이전이 급무임을 수차례에 걸쳐 태정관에 탄원하고 있었다(松尾正人, 앞의 논문, pp.15-8). 한편 신정부도 도호쿠 전쟁 전후처리과정에서 가신단의 扶助가 신정부의 주요과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특히 아이즈 항복인의 존재는 중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될 여지가 컸다(『木戸文書』3, p.158; 심기재(2012), 앞의 논문, p.278; 松尾正人, 위의 논문, pp.23-4). 따라서 신정부는 병부성과 개척사 사이의 항복인의 홋카이도로의 이주개척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으로, 병부성의 이주개척사업 포기청원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1만 여명이 넘는 항복인의 이주 대체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차에 앞서의 와카마쓰현의 탄원과 기도의 구상(본래 기도는 아이즈 항복인과 그 가족 17000여명의 7할인 12000여명을 홋카이도에, 나머지 3할인 5000여명을 도나미번에 이주시켜 개간에 종사시킬 구상이었다. 그러나 전술의 제사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이주숫자・대상지 면에서는 그 반대가 되었다)을 토대로 아이즈 마쓰다이라 가문의 재흥을 허가하고, 농지개척으로 재정확보를 마련한다는 조건하에 좀 더 농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된 도나미번으로의 이주가 결정되었다. 아울러 도나미번은 메이지 3년 1월 5일 신정부의 분령지배책의 일환에서 홋카이도의 後志国의 歌棄・瀬棚・太櫓 및 胆振国의 山越 등 총 4郡의 지배를 명령받았다. 도나미번은 메이지 4년 폐번치현으로 도나미현이 된 후, 제현과의 합병을 거듭한 끝에 아오모리현(青森県)에 최종 편입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홋카이도 이주개척의 아이즈 항복인처리가 미흡하나마 마무리되고, 제3의 대체지역인 도나미번으로의 이주가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인 1월경, 병부성은 기존의 개척지 관할을 개척사로 이관하거나, 신설 도나미번에 양도하고 이주개척사업에서 완전 철수했다.92)

Ⅳ. 맺음말

이상으로 아이즈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과 관련해 기도 타카요시의 인식과 정치적 노력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적' 아이즈번은 도호쿠 전쟁발단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되어 메이지 원년 12월 7일 번자체가 폐지되고, 번주 이하 가신 및 항복인들은 각각 참수 혹은 제3의 지역에서의 종신근신처분을 명령받았다. 처분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기도는 아이즈 전후처분이 군신의 죄를 범한 공적인 죄를 물었던 것이지 결코 사적인 감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이제 황국의 백성이 된 항복인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궁핍한 처지를 동정하며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시적 조치만으로는 막대한 처리비용과 국정수행상의 재정적·정치적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위탁제번에 근신중인 항복인에 대한 근본처방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기도는 위탁제번의 수용상의 어려움도 고려해 홋카이도 등의 지역에 항복인을 이주개척시켜 생활을 구제하고, 아울러 홋카이도를 러시아 남하로부터도 방어하고자 원년 후반기부터 군무관의 실력자인 오무라를 비롯한 신정부 요로에 자신의 구상을 제안한 결과, 이듬해 2월 9일 태정관으로부터 군무관과 함께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과 기타지역 선정사업을 담당해 추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

92) 개척사업 지휘차 메이지 2년 9월 25일 하코다테에 도착한 시마 요시타케(島義勇: 開拓使判官)는 10월 29일 현지에서의 항복인·파견관원의 이주수용 및 식량확보상의 어려움을 들어, 홋카이도 제일의 장소인 병부성 관할의 石狩·小樽·高島의 3郡 중에서 小樽·高島 2郡의 개척사로의 이관을 이와쿠라에게 강력히 요청했다(『岩倉関係文書』4, pp.324-5). 이후 이듬해 1월 8·9일 신정부는 병부성에 石狩·後志·釧路国 3国 중의 지배지를 개척사에, 後志·胆振国 2国중의 3郡을 도나미번에 각각 양도하도록 조치했다(『法令全書』<明治 3年>第11·12·17, pp.4-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로써 아이즈 항복인처리문제는 종래의 위탁제번 중심에서 기도·군무관 중심으로 옮겨져, 항복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12000여명을 홋카이도로, 나머지 5000여명을 도나미번으로 이주시켜 개간에 종사시킨다는 구상이 막대한 개척비용조달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월 상순경까지는 군무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비교적 잘 진행되어 나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7월 8일 관제개혁이라는 예기치 않은 정국변화 속에서 홋카이도 개척을 전담하는 개척사가 신설되고, 아울러 개척사장관 이하 주요 직책인선마저 조슈파의 좌장 기도가 배제된 채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종래의 병부성 전담의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이 개척사로 양도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 병부성의 실력자 오무라는 내심 10여년 정도의 기한부 사업추진을 바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일관성 없는 관할변경방침에 크게 반발하며 개척포기청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사쓰마파의 오쿠보와 유착관계의 이와쿠라가 주도한 관제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는 여기에 참의 소에지마와 개척사장관 나베시마 등의 사가파까지 가세해 자칫 잘못하다가는 본인과 오무라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항복인 이주개척사업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에 기도는 오무라에 개척포기를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우호적인 산조·오쿠마 그리고 이토·이노우에 등의 지인들에게는 신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에 대한 불만을 강력히 토로하며 개척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나아가 관장변경 추진의 당사자로 지목되던 오쿠보와 이와쿠라에게는 강력히 항의한 끝에 아이즈 항복인 홋카이도 이주개척사업은 원래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항복인 홋카이도 이주개척사업의 관장을 둘러싼 줄다리기 과정에서 사업지연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때마침 신정부의 홋카이도 분령지배정책과도 맞물리게 되면서 사업규모는 당초보다 대폭 축소된 채, 대신 도나미번의 신설과 함께 항복인의 대거이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 홋카이도 이외의 제3 지역으로의 이주는 애당초 이미 기도의 구상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가 일부 실현된 후 병부성은 일정을 앞당겨 메이지 3년 1월경 홋카이도 개척사업에서 철수했다. 요컨대 도호쿠 전쟁 최대 격전이었던 아이즈 전쟁 전후처리로서의 항복인의 홋카이도 이주개척사업은 메이지 원년 봄 이래 홋카이도 개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의해 항복인의 생활 구제·홋카이도 개척·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방 방비라는 목적에서 구상되어, 기도 자신과 정치적 맹우 오무라가 책임자로 있었던 군무관(병부성)의 정치적 노력으로 추진되어 오던 중, 그 관장을 둘러싼 권력다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나마 마침내 실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끝으로 아이즈번 처리를 포함한 보신전쟁 전후처리를 통해서 드러난 기도의 국가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기도는 보신전쟁 발발 당초부터 신정부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구막부 지지세력과의 '전쟁'이야말로 '大政一新의 基本'을 확립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보신전쟁관을 강조하며, '전쟁'을 통한 조기 평정을 줄곧 주장해왔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전쟁이 관군의 승리로 끝나고 보신전쟁에 참가한 신정부측의 제번 세력이 승리에 도취되어 서로 전공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특히 신정부의 운명을 가늠하는 최대의 격전지였던 도호쿠 지역의 천황의 '敎化'·'德化'에 기초한 민심 안정이 곧 신정부의 안착에 직결된다는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점령지 지배처리정책을 실시하고, 나아가 제번에 위탁근신 중이던 아이즈 항복번사의 홋카이도 등지로의 이주개척을 통해 항복인의 궁핍한 생활을 구제하고, 러시아의 남하로부터 홋카이도를 방어하고자 의도하기도 했다. 요컨대 기도는 도호쿠 전쟁을 포함한 보신전쟁의 조기 평정과 전후처리과정을 통해서 제지역에서의 민심 안정과 함께 천황의 '皇化'·'德威'가 대내외적으로 실천되어 궁극적으로 천황 그리고 신정부의 권위 및 통일적 지방지배가 조기에 확립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고, 또 그 실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木戸孝允日記』·『木戸孝允文書』·『木戸孝允関係文書』·『大久保利通日記』.
『大久保利通文書』·『大久保利通関係文書』·『大久保利通伝』·『伊藤博文関係文書』.
『岩倉具視関係文書』·『岩倉公実記』·『保古飛呂比 佐々木日記』·『太政官日誌』.
『法令全書』·『明治天皇紀』·『太政類典』·『勅語類·明治詔勅』·『公文録』.
『維新史料綱要』·『百官履歴』·『職員録』.

심기재(2010)「木戸孝允과 戊辰戦争」『日本語文学』47.
_____(2012)「木戸孝允과 戊辰戦争 전후처리-東北戦争을 중심으로-」『韓日関係史研究』41, pp.266-7, pp.274-6, p.278·283·286, pp.29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_____(2013)「木戸孝允과 東北戦争 戦後民政処理」『歴史学報』218.
会津若松史出版会編(1966)『会津若松史』5 会津若松市, pp.226-7.
池田嘉一(1969)「維新哀史,会津藩降伏人預り」上越郷土研究会編『頚城文化』27, pp.36-7.
榎本洋介(2009)『開拓使と北海道』北海道出版企劃センター, p.57.
妻木忠太(1927)『松菊木戸公伝』上 明治書院, p.1078, pp.1099-100.
_____(1927)『松菊木戸公伝』下 明治書院, p.1180・1182, pp.1183-4, pp.1188-90, p.1192.
_____(1985)『史実参考 木戸松菊公逸話』, 村田書店, pp.340-1.
星亮一(2008)『偽りの明治維新』大和書房, pp.175-6.
_____(2009)「会津藩斗南へ」三修社, p.22・24.
松尾正人(1977)「明治新政府の地方支配-若松県政を中心として-」『地方史研究』146.
_____(1986)「明治新政権の会津処分」小林清治編『福島の研究』4 清文堂, p.13, pp.15-8, pp.21-4.
_____(1995)『維新政権』吉川弘文館, p.123.

❖ 투고일 : 2013.6.29
❖ 심사완료일 : 2013.08.13
❖ 게재확정일 : 2013.08.1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